

OECD-FAO 세계농업전망 2026~2035년: 농식품 동향과 전망

김 동 휘*

1. 개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와 유엔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UN FAO)가 공동으로 작성한 「OECD-FAO 농업전망 2026-2035(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25-2034)」는 향후 10년간의 세계 농수산물 시장에 대한 포괄적인 전망을 제시한다. 본고는 이 중 제1장 「농식품 시장의 동향과 전망」을 다루며, 주요 농수산물의 품목별 글로벌 생산, 소비, 무역 전망을 정리한다.

농산물 생산 부문에 있어, 향후 10년간 생산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해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이러한 생산 증가는 주로 농산물의 생산성 향상에 기인할 것으로 보인다. 수요 부문에 있어서, 중간 소득국의 소득 증가는 축산물 중심의 식품 소비 전환을 불러올 것이며, 이는 사료 수요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교역은 지역 간 수급 불균형을 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OECD-FAO는 이번 농업전망에서 특별히 2026년 중동 분쟁에 따른 세계 경제 성장 둔화와 에너지 가격 상승을 전제로 한 보완적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또한 농업인 1인당 농업소득의 변화 추세를 분석하여 향후 농업소득의 개선 전망과 지속적인 변동성을 함께 살펴본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dkim11@krei.re.kr).

본고는 「OECD-FAO 농업전망(Agricultural Outlook) 2026-2035」 보고서 중 제1장(Agricultural and food markets: Trends and prospects)을 번역·정리한 것임.

2. 글로벌 농식품 및 거시경제 동향

2.1. 농식품 품목별 시장 동향

전 세계 인구 증가와 소득 개선에 따라, 2025년 곡물, 육류, 유제품, 어류 등 주요 품목 대부분 소비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여건에 따라 곡류, 설탕 등은 가격이 대폭 하락했지만, 육류, 유제품 등의 가격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2025년 시장 동향은 아래 <표 1>과 같다.¹⁾

<표 1> 2025년 주요 품목별 시장 동향

품목	주요 트렌드
곡물	• 품목과 지역별 차이는 존재하나, 전반적으로 세계 곡물시장의 공급은 충분한 상황 • 쌀: 인도의 수출 제한 철폐 및 전 세계 풍작으로 인하여 가격 대폭 하락 → 2026년 수요 증가에 따라 반등 전망 • 25년 밀·옥수수 가격 하락 → 주요 수출 지역의 기상 이변으로 인해 '26년 상승 압력
유지종자	• '25년 대두 생산량은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 • 바이오연료 부문에서 대두 수요 증가 → 대두 가격 소폭 상승 • 바이오매스 기반 디젤 수요 증가, 주요 팜유 생산국의 생산 감소 → 식물성 유지 가격 상승
설탕	•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 수요 증가에 따라 전 세계 수요 소폭 증가 • 공급 증가량이 수요 증가량을 상회하여, 국제 가격은 하락
육류	• 소고기, 양고기 공급 부족 / 전 세계 육류 수입 수요 증가 → 육류 가격 상승 • 수요 증가는 대부분 가금류와 돼지고기에서 발생
유제품	• 전 세계 수입 수요 증가 및 유지방 수요 증가 → '25년 상반기 유제품 국제 가격 증가 • 우유 생산량 확대와 주요 수출국의 수출량 확대 → '25년 중반 이후 가격 상승폭 완화 • 향후 인구 증가와 식생활 변화로 인하여 유제품 수요 지속 확대 전망
수산물	• 식용 소비는 증가하였으나, 비식용 소비 증가 폭은 상대적으로 완만 • '23~'24년 가격이 지속 하락하였으나, '25년 반등
바이오연료	• 국제 바이오연료 소비는 연평균 3.5% 지속 상승 • 소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원유 및 사료 가격 하락, 세금 감면 정책 등에 따라 바이오연료 가격 하락
목화	• 전 세계 소비 증가 폭은 상대적으로 완만하였으나, 생산 증가량과 수출 가능 물량 증가에 따라 국제 가격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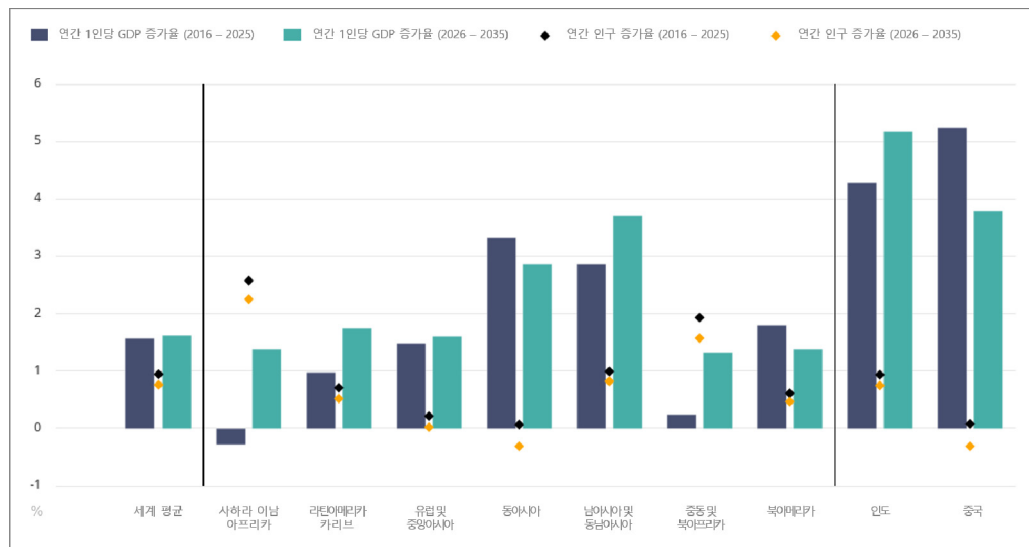
자료: OECD/FAO(2026: 18~19)를 참조하여 저자 재가공.

1) 주요 품목별 가격 전망은 부표 3을 참고.

2.2. 주요 거시경제 동향²⁾

전 세계 1인당 GDP 증가율은 2025년 1.8%에서 2026년 1.6%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인당 소득은 인도, 중국 등 신흥 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인구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0.8%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2035년에는 88억 명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인구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으로, 연평균 2.2%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인도는 세계 최대 인구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증가 폭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인구는 향후 10년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연간 1인당 GDP 및 인구 증가율



자료: OECD/FAO(2026).

물가상승률은 2022~23년 수준과 비교해 둔화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통화 긴축 정책의 시차 효과와 상품 가격 하락에 의한 것이다.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등 일부 예외는 존재하나, 이러한 추세는 대부분 국가에서 2026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2026년 이후 모든 국가의 물가상승률이 10% 미만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준 유가는 가장 높았던 시기인 2022년 배럴당 101달러에서, 2025년 68달러까지 점진적으로

2) 연간 1인당 GDP 증가율 및 인구 증가율의 세부 수치는 부표 1, 2를 참고.

하락했으나, 2026년 초 중동 분쟁에 의한 교역 차질로 인해 일시적으로 75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분쟁의 영향은 점차 줄어, 중기적으로는 세계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표 2〉 주요 거시경제 동향

구분	주요 거시경제 동향
총소득	• 세계 1인당 소득 증가율: 2025년 1.8% → 2026년 1.6% • 인도, 중국 등 신흥 아시아 국가가 가장 빠른 소득 증가율
인구	• 2026~2035년 세계 인구 연평균 0.8% 증가 → 2035년 세계 총인구 88억 명 전망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연평균 2.2% 증가 • 중국 인구는 소폭 감소 전망 / 인도는 세계 최대 인구국 • 인구 증가세 둔화로 인한 세계 식품 수요 증가세 완화
물가상승률 및 유가	• 2022~23년의 높은 인플레이션은 통화 긴축 정책의 시차 효과로 인해 둔화 • 일부 국가 제외, 2026년에 물가상승률 둔화 전망 • 배럴당 기준 유가: 2022년 101달러 → 2025년 68달러 → 2026년 75달러 • 중동 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효과는 중기적으로 감소할 예정
글로벌 불확실성	• 지정학적 분쟁, 주요 해상 교역로 병목으로 인한 에너지 시장과 비료 공급망의 불확실성 확대 •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위생 리스크 •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 이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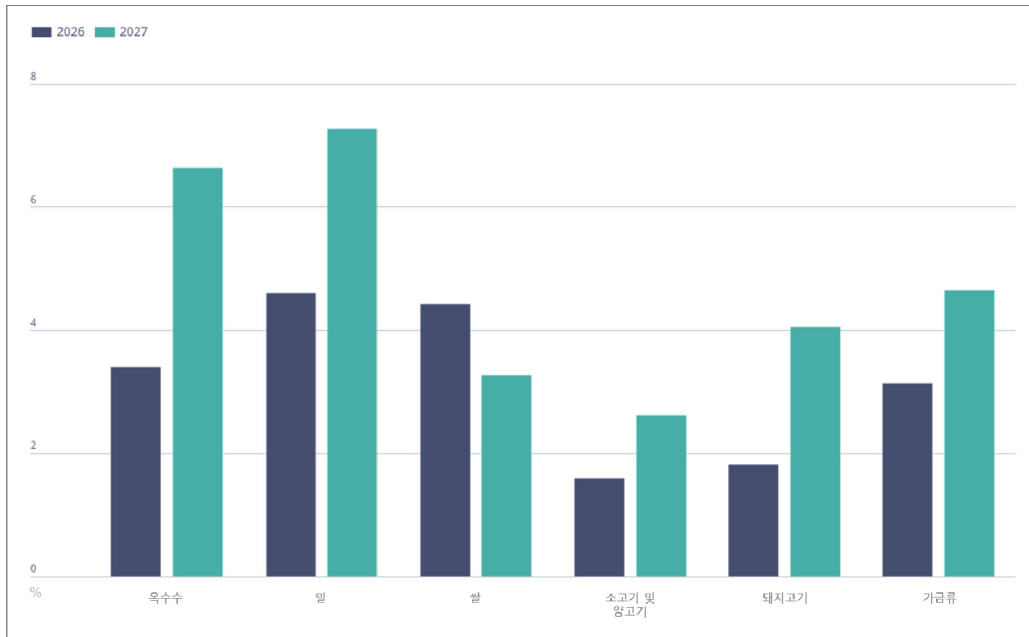
자료: OECD/FAO(2026: 20~24), 저자 재가공.

글로벌 농식품 시장의 중기 전망에는 지정학적 분쟁, 에너지 가격 변동성, 투입재 비용 불안정 등 다양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특히 2026년 초 중동 분쟁은 에너지 시장과 비료 공급망 등에 불확실성을 높였으며, 이에 이번 전망은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경제 성장 둔화와 에너지·비료 가격 상승이 농식품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한다.

시나리오 분석은 IMF의 2026년 봄 세계 경제 전망 시나리오(2026 IMF World Economic Outlook - Adverse Scenario)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이 시나리오는 중동 분쟁의 영향으로 기존 전망치 대비 에너지 가격이 2026년 약 33%, 2027년 약 10% 상승하고, 비료 가격은 각각 29%, 17% 상승할 것으로 가정한다. 이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비료 사용량은 감소하고, 농식품 생산 비용이 상승하며, 소득 증가세가 둔화하여, 결과적으로 농산물 수요도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분쟁에 따른 에너지, 비료 등 투입재 가격 상승과 식품 수요의 비탄력성으로 인하여 주요 농수산물의 국제 가격은 모두 기존 예측치보다 높게 형성될 것으

로 나타났다. 투입재 비용의 가격 전이에는 시차가 존재하기에, 가격 상승효과는 2027년에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중동 분쟁 시나리오 적용 시 기준 전망 대비 가격 변화



자료: OECD/FAO(2026).

이러한 분쟁의 효과는 국가의 소득수준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소득국은 무역과 보유한 식량 재고를 활용하여 소비를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지만, 저소득국은 생산과 소득 여력이 동시에 약화되어 식량안보가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저소득국에서는 육류 등 동물성 식품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곡물과 같은 주식용 식품으로 소비가 이동하여 식단의 다양성과 영양 수준이 저하될 수 있다.

3. 생산 전망

3.1. 농업 생산성 및 가격 전망

향후 10년간 전 세계 농산물 생산 증가의 약 73%는 단위 개선, 9%는 농지 이용의 집약화에 기인할 것으로 예상되어, 생산성 향상이 생산 확대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물 역시 생산 증가의 상당 부분이 생산성 향상에서 비롯될 것으로 보이나, 사육두수 확대 역시 일정 부분 생산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국 및 중간 소득국은 종자 개량, 가축 육종기술 향상, 농장관리 개선, 비료 사용 확대, 수의(Veterinary) 서비스 접근성 향상 등으로 인해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향후 10년 동안 저소득국에서는 곡물과 유제품, 중하위 소득국에서는 곡물, 유제품, 소고기의 단위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며, 이들 품목의 연평균 생산성 증가율은 1~3%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는 기상 이변, 국제 분쟁 등 불확실성을 배제한 예측치이며, 기상 여건 악화, 가축 질병 발생 등이 이러한 전망치를 달성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고소득국에서는 대부분 품목의 연평균 생산성 증가율이 0.5% 이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며, 중상위 소득국에서는 유제품 생산성만 예외적으로 연평균 약 1.0% 증가할 전망이다.

〈그림 3〉 주요 품목 연평균 단위 생산성 증가율



주: 작물의 단위 생산성은 총생산량을 수확면적으로 나눈 값이며, 축산물의 단위 생산성은 총생산량을 가축 사육두수로 나눈 값임.
자료: OECD/FAO(2026).

다만 저소득국과 중하위 소득국의 빠른 생산성 향상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와 고소득 국가의 절대적인 격차는 유지될 전망이다. 이러한 격차는 국가들 사이의 농업 환경 조건 차이뿐만 아니라 농업 금융, 숙련노동자, 농업 투입재 등에 대한 접근성 차이에서 비롯된다. 향후 경지와 사육두수 확대에 따른 환경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저소득국과 중하위 소득국의 식량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기술 격차를 줄이고 전 세계 식량 생산 체계의 집약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향후 10년간 세계 농산물 가격은 대체로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현재 수준보다 약간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일시적인 가격 급등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과거에도 석유 위기, 세계 금융 위기, 코로나19, 지정학적 분쟁 등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장기 가격 전망에서 벗어나는 변동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중상위 소득국과 고소득국은 식품 수요의 가격 비탄력성이 높아, 비교적 작은 공급 차질도 큰 폭의 가격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품목별로는 사육두수 감소, 인구·소득 증가에 따른 동물성 단백질 수요 확대 등으로 인하여, 소고기 가격이 2025년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다만 브라질, 캐나다, 미국 등 주요 수출국의 사육두수 재건이 진행됨에 따라 소고기 가격은 2026년 정점을 기록한 후 중기적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중동 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은 운송비 상승과 바이오연료 수요 증가를 유발해 비료와 곡물 가격 상승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3.2. 농업 총생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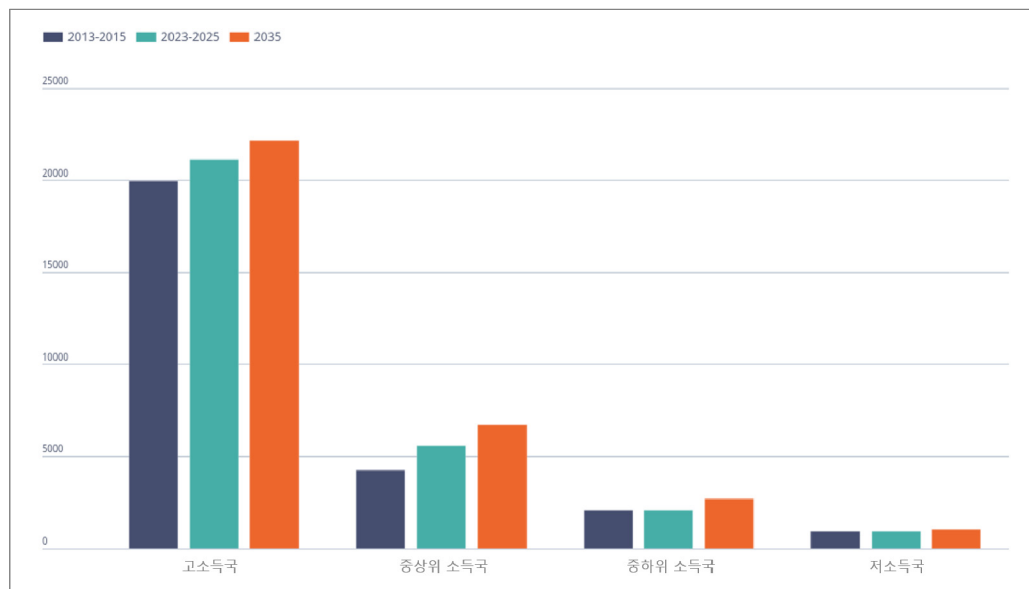
향후 10년간 세계 농업 총생산액은 총 13.3% 증가하여, 2035년에는 4조 10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부문별로는 축산물 생산액이 15.1% 증가하여 가장 큰 폭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곡물은 12.5%, 수산물은 11.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태평양,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 등 중간 소득국의 농업 총생산액 증가분이 이 중 80.3%를 견인할 전망으로, 이는 이들 지역이 상대적으로 생산성 향상 여력이 큰 것을 보여준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2035년까지 농업 추가 생산액의 57.5%를 차지할 전망으로, 이 중 인도는 유제품 생산 확대를 기반으로 세계 농업 생산 증가분의 25.6%를 차지할 것

으로 전망된다. 중국 역시 지난 10년간 세계 농업 생산 증가분의 20.9%를 차지하였으나, 향후 10년간 이 비중은 13.9%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세계 농업 생산 증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0년간 11.2%에서 향후 15.6%로 상승할 전망이다. 토지·축산업 생산성 향상, 사육두수·경작지 확대 등 생산 자본 확대와 생산성 개선이 복합적으로 농업 총생산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농업 생산 증가분에서 동남아시아의 기여도는 6.5%에서 10.4%로 증가하고, 중남미 또한 12.7%에 이를 전망이다. 반면 북미, 유럽, 중앙아시아는 생산 증가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 세계 농업 생산액 전망



주: 금액은 2014~2016년 불변 미 달러 기준임.
자료: OECD/FAO(2026).

세계 농수산물 생산 확대와 중간 소득국의 사육두수·경지 증가로 인해 향후 10년간 농업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은 6.5% 증가할 전망이다. 동남아시아 및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직접배출은 2035년까지 각각 7%, 1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유럽 및 중앙아시아에서는 환경 및 기후 관련 정책과 농업 구조 변화로 직접배출이 0.9% 감소할 전망이다.

농업 직접 온실가스 배출 증가분의 76.6%는 축산 부문에서 발생하고, 합성비료 사용은 22.7%를 차지할 전망이다. 이 수치에는 비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를 포함하면 비료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규모가 약 두 배로 증가한다. 벼도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이지만, 향후 쌀 생산 증가는 재배 면적 확대보다는 단수 향상으로 인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적인 온실가스 배출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농업 생산 증가가 경지 확대보다는 생산성 개선을 통해 이루어짐에 따라, 모든 지역에서 단위 생산량 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나타내는 탄소집약도는 하락할 전망이다.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서는 온실가스 직접배출의 절대량이 증가함에도, 탄소집약도는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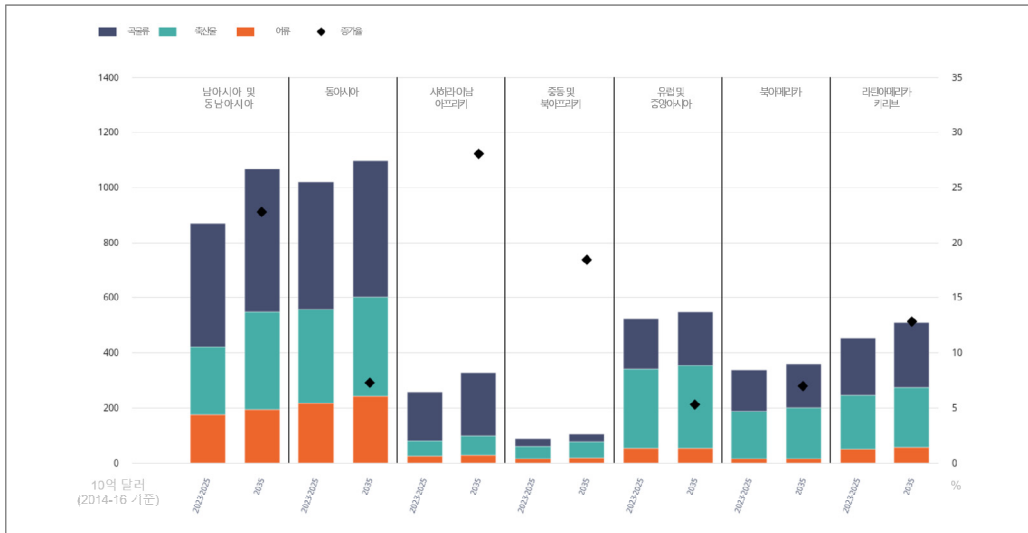
3.3. 농업 노동생산성 및 농업소득 전망

농업 노동생산성³⁾은 국가의 농업 부문의 실질 GDP를 농업 종사자 수로 나눈 값으로, 농업 종사자 한 명이 창출하는 농업 부문 경제적 가치를 나타낸다. 농업 노동생산성은 토지 규모 대비 노동력 사용이 낮고, 자본 집약적인 생산 기술이 확대된 북미, 서유럽, 오세아니아의 고소득국에서 가장 높다. 중남미, 동유럽, 동아시아, 중앙아시아 등 주요 중간 소득국은 자본 집약적 생산체제로 전환 중인 추세를 보이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등 저소득국은 영세농 중심의 생산 구조와 낮은 시장 접근성, 자본 부족 등으로 노동생산성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23~2025년 고소득국의 농업 노동생산성은 2만 1,000달러(2015년 달러 가치 기준)를 상회하였으나, 저소득국은 1,000달러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2035년까지 대부분 국가에서 농업 노동생산성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증가 속도에는 차이가 나타날 전망이다. 중하위 소득국은 약 30%로 증가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이며, 중상위 소득국은 19%, 저소득국은 1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고소득국의 증가율은 5%에 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가 간 농업 노동생산성 격차가 일부 축소되겠지만, 절대적인 생산성 차이는 여전히 크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3) 농업 노동생산성은 농업인의 숙련도나 실제 근로시간은 반영하지 않으며, 투자 비용, 부채 비용 등 자본과 관련된 비용과 농업 지원 정책의 효과도 고려하지 않음. 따라서 해당 지표는 농업의 구조적 변화만을 보여주며, 농가의 순소득이나 후생 수준과 같은 개념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그림 5〉 평균 농업 노동생산성



주: 농업 노동생산성은 농업부문 실질 GDP를 농업 종사자 수로 나눈 값이며, 금액은 2015년 불변 미 달러 기준임.
자료: OECD/FAO(2026).

단수 증가가 농업 노동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는 있지만, 기술적 생산성 향상만으로 농가의 소득과 후생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력이 풍부함에도 자본과 농의 취업 기회가 부족한 저소득국과 중간 소득국에서는 노동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농의소득 기회가 중요하다. 따라서 이런 국가의 농가 소득·후생 개선을 위해서는, 기계화 및 자동화, 농의 취업 기회 확대 등 자본의 투입과 더불어 경영 능력 개선, 소득 구조 다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필요하다. 다만 농의 일자리 창출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계화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농업 노동력이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농업 생산성 향상과 함께 농업 외 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병행되어야 한다.

농업소득의 높은 변동성도 투자와 신규 농업인의 진입을 제약한다. 2001~25년간 발생한 변동성이 향후 10년에도 비슷한 빈도로 발생하여 농업 부문 투자와 신규 농업인의 진입을 제약한다고 가정하면, 세계 농업 노동생산성이 기준 전망보다 12% 이상 낮아질 확률이 약 25%로 분석된다. 저소득국에서는 기존 전망보다 노동생산성 감소가 20%를 초과할 수 있으며, 이는 2035년 저소득국의 농업 노동생산성이 현재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약 25%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가의 위험 관련 정보와 대응 방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재해 보험 등 위험 이전 수단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4. 소비 전망

4.1. 농산물 소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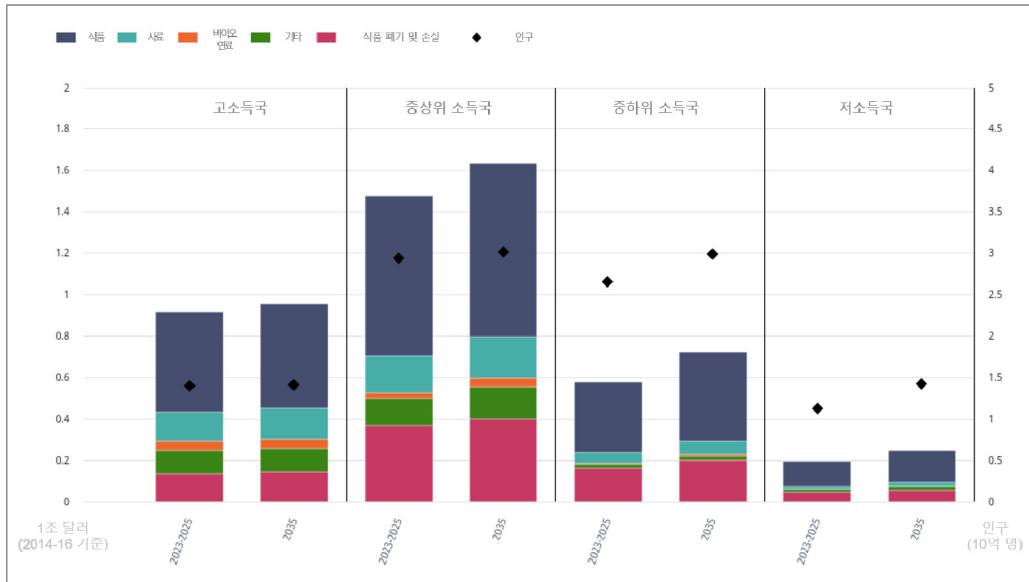
향후 10년 세계 농수산물 소비액은 2023~2025년 평균 대비 12.5% 증가할 전망이다. 소비 증가의 대부분은 중간 소득국과 저소득국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며, 인구 증가, 소득 증가, 도시화 등 소비구조의 변화가 주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도, 동남아시아 등 중하위 소득국이 세계 소비 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보이며, 이들 국가가 2035년까지 세계 소비 증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9%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중국의 증가분 기여도는 13%로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이는 중국의 1인당 식품 수요가 포화 수준에 도달했고 인구 감소가 예측되기 때문이다.

중간 소득국에서는 소득 증가에 따라 식량작물 중심의 소비에서 축산물과 수산물 소비의 비중이 커지는 방향으로 소비가 변화할 전망이다. 축산물 생산이 증가하면서 사료작물 수요도 늘어나 곡물과 유지종자 중 가축 사료로 사용되는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하위 소득국의 사료 수요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2.8% 증가하여 전체 소득군 내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반면 중상위 소득국에서는 축산물 생산 증가율이 낮아져, 사료 수요 증가율도 지난 10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등 저소득국에서 역시 빠른 인구 증가로 농산물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소비는 여전히 식량작물 중심으로 유지될 전망이며 식량안보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총 농산물 이용액은 중상위 소득국에서 가장 크지만, 향후 증가세는 중하위 소득국과 저소득국에서 상대적으로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고소득국은 인구와 식품 수요가 모두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전체 농산물 소비의 변화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상위 소득국에서는 농산물이 사료와 기타 용도로도 많이 사용되나, 중하위 소득국과 저소득국에서는 식용이 대부분을 차지할 전망이다.

〈그림 6〉 소득수준별 농산물 이용 구조



주: 농산물 이용액은 2014~2016년 불변 미 달러 기준임.
자료: OECD/FAO(2026).

식품 공급망 내 존재하는 비효율성 문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 손실 및 폐기는 지속하여 증가할 전망이며, 이 중 중간 소득국에서의 손실은 저온 저장시설 및 효율적인 운송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부족에 기인한다. 반면 고소득국의 식품 폐기는 소비 기한 등 엄격한 상품화 기준과 식품 안전 관행, 소비자 행동과 더욱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농산물 소비는 식용, 사료용, 폐기 및 손실 이외에도 바이오연료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적 용도로 소비된다. 세계 바이오 연료용 농산물 이용액은 전체 연료 수요의 증가와 각국의 지원 정책에 힘입어 향후 연평균 1.3%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액 증가의 대부분은 중간 소득국에서 발생하며, 에탄올은 브라질과 인도, 바이오디젤은 인도네시아에서 소비 확대가 두드러질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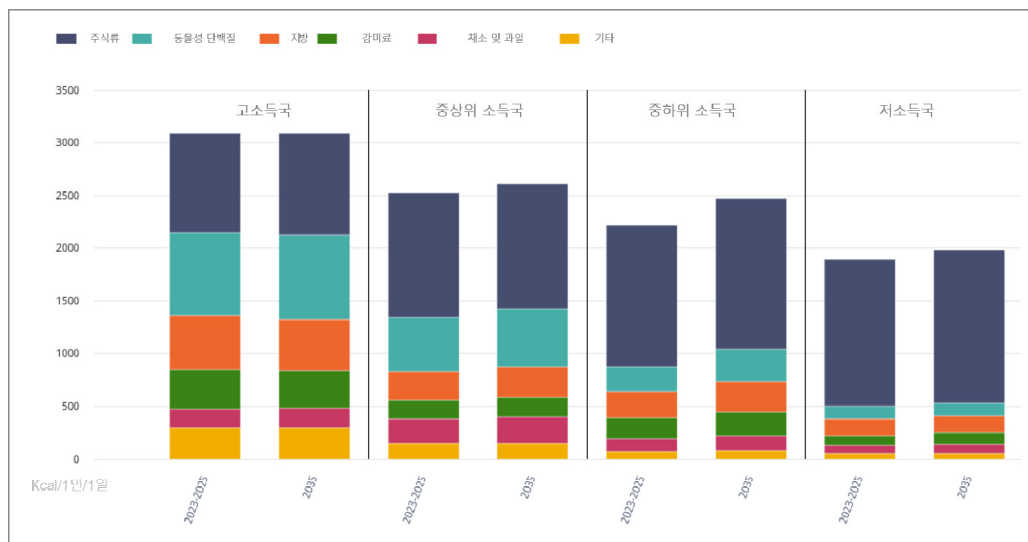
4.2. 식단 전환 전망

향후 10년 생산 증가로 식품 가격이 안정되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중간 소득국의 식단은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모든 소득 그룹에서 단백질 소비량이 증가하겠으나,

이 변화는 중하위 소득국과 중상위 소득국에서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육류, 유제품 등 동물성 식품이 이러한 소비 패턴 변화를 주도할 전망이다.

중하위 소득국에서는 1인의 1일 총칼로리 소비량이 증가하는 동시에 영양소 공급원이 더욱 다양해지고, 동물성 식품이 전체 식단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중상위 소득국에서도 비슷한 패턴의 식단 다양화가 이어지겠으나, 식생활이 점차 안정된 형태에 접근하면서 변화 속도는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저소득국에서는 구매력증가 폭이 제한적이어서 식단의 다양성 개선이 상대적으로 느리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소득국의 경우 이미 식품 소비가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어, 식단 구성과 총칼로리 공급량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식물성 대체식품의 공급이 확대되고 있으나, 전체 식품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최근 일부 고소득국에서 나타난 육류 소비 감소도 가격 변동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7〉 식품군별 1인당 1일 총칼로리 공급 구성



주: 주식류는 곡물·근경류·두류, 동물성 단백질은 육류·유제품(버터 제외)·계란·수산물, 지방은 버터와 식물성 기름, 감미료는 설탕과 고과당 옥수수시럽을 포함함. 기타는 이외의 작물 및 동물성 식품을 포함함.

자료: OECD/FAO(2026).

5. 무역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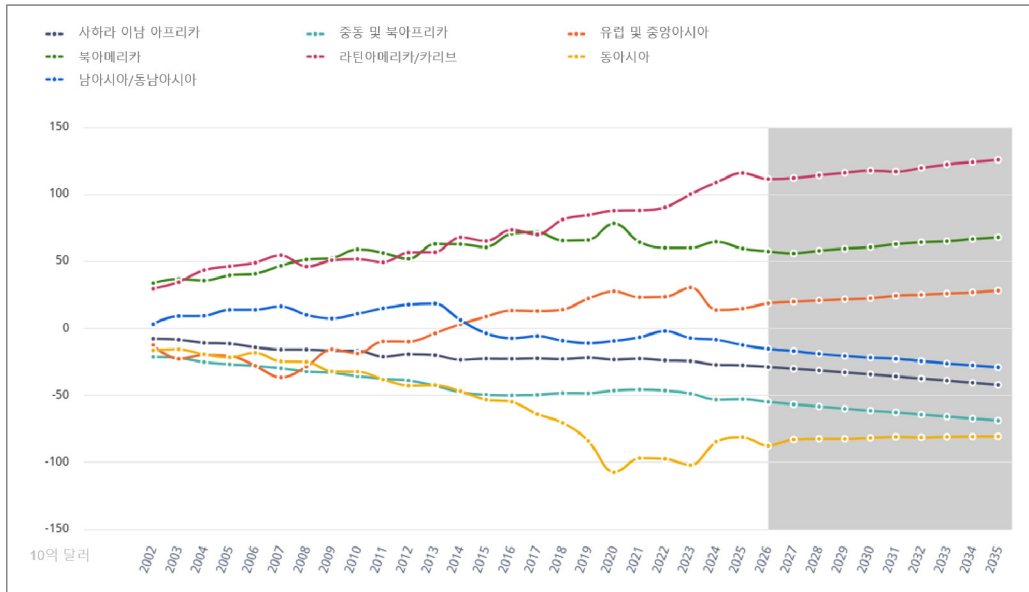
5.1. 농산물 무역 전망⁴⁾

농산물의 세계 총생산량 대비 교역량 비중은 2000년 16%에서 최근 22~23%로 상승하였다. 다만 과거 자유 무역 확대의 영향이 약화하면서, 2019년 이후로는 이 비중이 안정적인 추세로 유지되고 있으며, 향후 10년간에도 현재 수준을 대체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 수출은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남미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를 중심으로 세계 최대 농산물 순수출 지역으로의 지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북미는 2020년의 고점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수출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두 번째로 큰 순수출 지역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 및 중앙아시아는 흑해 지역의 생산 증가, 생산성 향상,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2014년부터 순수출 지역으로 전환하였으며, 향후 교역 흑자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반면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중산층이 확대되는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농산물 순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슷한 원인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기본 식품 순수입은 2035년까지 55% 증가하고,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순수입은 34% 증가할 전망이다. 두 지역은 인구 증가율은 빠른 데 반해 자체적인 식량 생산 확대 여건이 제한적이기에 앞으로도 순수입이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선진국 및 동아시아의 순수입 규모는 중국의 수요 증가세 둔화로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4) 품목별 수입량 및 수출량 전망은 부표 4, 5를 참고.

〈그림 8〉 주요 농산물의 지역별 순농산물 교역 규모



주: 순교역은 OECD-FAO 농업전망 대상 품목의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차감한 값임.
 자료: OECD/FAO(2026).

향후 농산물 생산 잉여국과 부족국 사이의 구조적 연결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결 강화를 통해 농산물 교역은 역내 공급 부족을 보완하여 가격 변동을 완화하고, 비교우위가 있는 지역에서 농산물이 생산되도록 함으로써 식품 가격을 낮추는 데 기여한다. 또한 교역은 소비자가 자국 내 생산되지 않는 품목이나 계절 외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한다. 반면 농산물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는 가격 급변에 따른 외환보유액 부담과 환율 변동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요 수출국에서 이상기후나 무역정책 변화로 공급 차질이 발생하면 그 영향이 수입국으로 빠르게 전이될 위험도 존재한다.

5.2. 농산물 무역과 식량안보

코로나19, 지정학적 분쟁, 무역 갈등 등 반복적인 충격에도 세계 농식품 교역은 비교적 높은 회복력을 보여왔다. 식품 주요 생산지역과 수요가 높은 지역이 지리적으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농산물 무역체계는 지역 간 식량 과부족을 조정하고 가격을 안정시키며 세계 식량안보와 농촌 생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향후 주요 순수출 지역에서는 국내 생산에서 농산물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칼로리를 기준으로 2023~2025년 북미는 자체 생산량의 28%, 중남미는 44%를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의 수출 비중도 2015년 23%에서 2035년 31%로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대규모 순수출 지역도 개별 국가에서 소비하는 모든 품목을 자체 생산하는 것은 아니다. 중남미를 예로 들면 전체 소비량의 약 22%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상당한 규모의 역내 교역 또한 포함된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에서는 자원 부족으로 식품 및 사료 생산 확대가 제한되어 향후 수입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며, 농산물 총소비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칼로리 환산 기준으로 2035년 7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역시 비슷한 패턴을 보여, 수입 의존도는 2025년 20%에서 2035년 22%로 상승할 전망이다.

이처럼 무역은 식량 부족 지역의 공급을 보완하고 식품 접근성을 보장하며, 수출지역 농업인에게는 시장과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국가들이 공급망 충격이나 일시적인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출을 제한할 경우, 세계 시장의 공급이 더욱 경색되고 수입국의 식량안보가 악화되기에, 향후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무역정책과 다자간 협력이 요구된다.

6. 결론 및 시사점

이번 OECD-FAO 농업전망은 향후 10년간(2026~2035년) 세계적으로 지속되는 인구 증가와 소득 상승에 따른 수요 증가가, 생산성 향상에 기반한 생산 증가와 맞물리면서 농산물 가격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만 이는 주요 전제조건이 유지되는 상황을 가정한 기준 전망이며, 실제로는 지정학적 분쟁, 육·해상 운송망의 병목, 기상 이변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단기적인 충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이번 전망에서는 올해 초 발생한 중동 분쟁으로 비료와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향후 농산물 가격의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이러한 충격은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의 식량안보를 위협하고, 식단의 다양성과 영양 수준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생산 부문에서는 향후 단수 개선과 농지 이용의 집약화를 통한 생산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에 따라 대부분 지역에서 농업 노동생산성이 향상되고, 이를 바탕으로 농업소득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만 이러한 성장세는 국가의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특히 저소득국은 농업 금융, 숙련노동자, 농업 투입재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영세농 중심의 생산 구조와 제한적인 시장 접근성이 지속되고 있어 고소득국에 비해 성장세가 더딜 것으로 전망하였다.

소비 부문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향후 10년간 식품 가격이 안정되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중간 소득국의 식단이 더욱 다양해지고, 이에 따라 육류와 유제품 등 동물성 식품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다만 식품 공급망의 비효율로 인해 식품 손실과 폐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하였다.

이번 OECD-FAO 농업전망은 향후 농산물 무역이 수입국의 역내 공급 부족을 보완하고 가격 변동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비교우위가 있는 지역에서 농산물이 생산되도록 함으로써 식품 가격을 낮추고, 소비자가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을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소비할 수 있게 하는 편익도 제공한다고 설명하였다. 농산물의 주요 생산지역과 소비지역이 지리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제무역은 지역 간 식량의 과부족을 조정하고 가격을 안정시키며, 식량안보와 농촌지역의 생계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번 전망은 기준 전망의 조건이 유지될 경우 세계적으로 식품 소비의 다양화와 영양 공급 개선, 농업소득 증가 및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지정학적 분쟁과 기후변화 등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세계 식량안보가 위협받고 농식품 공급이 경색될 가능성도 함께 경고하였다. 저소득국은 이런 불확실성으로 인한 충격에 더욱 취약하며, 일시적인 식량가격 상승도 저소득국의 식량안보와 영양 수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다자 협력과 농업 분야 국제개발협력을 통해 저소득국의 농업생산성 향상, 농가소득 증대 및 국민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세계적인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무역정책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제무역 질서 확립에도 적극적으로 이바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적으로도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기반 강화 및 국제무역을 활용한 탄력적인 수급 조절 체계를 마련하여 대외 충격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여야 한다.

〈부표 1〉 국가별 1인당 실질 GDP 성장률 전망(2026-2035, 2010년 달러 기준)

단위: %

구분	'23-'25 평균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호주	0.6	1.3	1.4	1.3	1.4	1.5	1.5	1.5	1.4	1.4	1.3
캐나다	0.2	0.4	0.9	0.9	1.0	1.0	1.4	1.3	1.4	1.4	1.4
칠레	1.4	1.6	1.9	1.9	2.0	1.9	1.6	1.6	1.6	1.5	1.5
콜롬비아	0.5	1.3	1.6	1.8	2.0	2.0	1.7	1.7	1.7	1.7	1.7
EU	1.0	1.6	1.8	1.8	1.8	1.8	1.8	1.7	1.7	1.7	1.7
이스라엘	0.3	2.5	2.1	1.7	1.4	1.2	1.0	0.9	0.9	0.8	0.8
일본	1.3	1.4	1.5	1.1	1.1	1.1	0.6	0.6	0.5	0.5	0.5
한국	1.6	2.2	2.3	2.4	2.2	2.2	2.1	2.0	1.9	1.8	1.8
멕시코	1.0	0.4	1.0	1.4	1.4	1.4	1.0	1.1	1.1	1.1	1.1
뉴질랜드	-0.1	1.1	2.1	1.7	1.7	1.7	1.6	1.6	1.6	1.6	1.5
노르웨이	-0.2	1.0	1.0	1.0	1.0	1.0	0.4	0.4	0.4	0.4	0.4
스위스	0.4	0.7	0.8	1.4	0.9	1.5	1.5	1.5	1.6	1.6	1.6
튀르키예	3.5	1.9	1.9	1.8	1.9	1.9	1.9	1.9	2.0	2.2	2.3
영국	0.3	0.6	0.8	0.9	1.0	1.0	1.2	1.2	1.2	1.2	1.2
미국	2.0	1.2	1.4	1.6	1.4	1.3	1.4	1.4	1.4	1.4	1.4
브라질	2.6	1.3	1.9	2.0	2.1	2.2	1.6	1.5	1.5	1.4	1.3
이집트	1.8	3.2	3.3	2.8	2.5	2.2	2.1	2.1	2.0	2.0	1.9
인도	6.5	5.2	5.5	5.6	5.7	5.7	5.1	4.9	4.8	4.6	4.4
인도네시아	4.1	4.2	4.2	4.2	4.4	4.5	3.7	3.6	3.4	3.3	3.2
이란	2.1	0.3	0.9	1.4	1.4	1.5	1.4	1.4	1.4	1.3	1.1
말레이시아	3.1	2.8	2.9	2.9	2.9	2.9	2.5	2.4	2.4	2.3	2.2
파키스탄	0.1	1.2	0.3	0.3	0.5	0.7	0.7	0.8	0.8	0.8	0.8
중국	5.4	4.6	4.6	4.2	4.0	3.7	3.7	3.7	3.6	3.6	3.6
페루	0.8	1.7	1.5	1.6	1.6	1.6	2.1	2.1	2.1	2.1	2.2
러시아	3.4	0.9	0.8	1.4	1.4	1.4	1.4	1.4	1.3	1.3	1.3
사우디아라비아	-0.2	2.2	1.5	1.7	1.7	1.8	1.3	1.1	0.9	0.8	0.6
남아프리카공화국	-0.4	0.1	0.5	0.7	0.8	0.9	0.8	0.9	0.9	0.9	0.9
우크라이나	5.5	0.6	5.6	7.1	6.7	5.2	4.2	2.8	2.0	1.5	1.4
OECD	1.3	1.3	1.5	1.5	1.5	1.4	1.4	1.4	1.4	1.4	1.4

자료: OECD Data Explorer(<https://data-explorer.oecd.org/>), 검색일: 2026.8.24.의 자료를 재가공하여 저자 작성.

〈부표 2〉 국가별 인구 증감률 전망(2026~2035)

단위: %

구분	'23-'25 평균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호주	1.0	0.9	0.9	0.9	0.9	0.8	0.8	0.8	0.8	0.8	0.7
캐나다	1.1	0.8	0.8	0.7	0.7	0.7	0.7	0.6	0.6	0.6	0.5
칠레	0.5	0.4	0.4	0.4	0.3	0.3	0.3	0.3	0.2	0.2	0.2
콜롬비아	1.1	1.0	0.9	0.9	0.8	0.7	0.7	0.6	0.6	0.6	0.5
EU	0.0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이스라엘	1.5	1.4	1.4	1.3	1.3	1.3	1.3	1.3	1.3	1.3	1.3
일본	-0.5	-0.5	-0.6	-0.6	-0.6	-0.6	-0.6	-0.6	-0.6	-0.6	-0.6
한국	-0.1	-0.1	-0.2	-0.2	-0.2	-0.2	-0.3	-0.3	-0.3	-0.4	-0.4
멕시코	0.9	0.8	0.8	0.7	0.7	0.7	0.7	0.6	0.6	0.6	0.6
뉴질랜드	0.8	0.7	0.6	0.6	0.5	0.5	0.5	0.4	0.4	0.4	0.4
노르웨이	1.0	0.5	0.4	0.3	0.3	0.3	0.3	0.3	0.2	0.2	0.2
스위스	0.7	0.5	0.4	0.4	0.3	0.3	0.3	0.2	0.2	0.2	0.2
튀르키예	0.2	0.3	0.3	0.3	0.3	0.3	0.3	0.3	0.3	0.2	0.2
영국	0.7	0.5	0.5	0.5	0.5	0.4	0.4	0.4	0.4	0.4	0.3
미국	0.6	0.5	0.5	0.5	0.5	0.5	0.4	0.4	0.4	0.4	0.4
아르헨티나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브라질	0.4	0.4	0.3	0.3	0.3	0.3	0.2	0.2	0.2	0.2	0.2
이집트	1.7	1.5	1.5	1.4	1.4	1.4	1.4	1.4	1.4	1.4	1.3
인도	0.9	0.9	0.8	0.8	0.8	0.8	0.7	0.7	0.7	0.7	0.6
인도네시아	0.8	0.8	0.7	0.7	0.7	0.6	0.6	0.6	0.6	0.6	0.5
이란	1.1	0.8	0.7	0.6	0.6	0.5	0.5	0.5	0.5	0.4	0.4
말레이시아	1.2	1.1	1.1	1.1	1.1	1.0	1.0	1.0	1.0	0.9	0.9
파키스탄	1.6	1.6	1.6	1.7	1.7	1.7	1.7	1.7	1.7	1.7	1.6
중국	-0.2	-0.2	-0.2	-0.3	-0.3	-0.3	-0.3	-0.3	-0.4	-0.4	-0.4
페루	1.1	1.0	1.0	0.9	0.9	0.8	0.8	0.8	0.8	0.7	0.7
러시아	-0.4	-0.4	-0.2	-0.3	-0.3	-0.3	-0.3	-0.3	-0.3	-0.3	-0.3
사우디아라비아	2.4	1.7	1.7	1.6	1.6	1.4	1.4	1.4	1.3	1.3	1.3
남아프리카공화국	1.3	1.1	1.1	1.0	1.0	1.0	0.9	0.9	0.9	0.9	0.8
우크라이나	-1.6	1.4	-0.7	-0.7	-0.8	-0.8	-0.8	-0.8	-0.8	-0.8	-0.8
OECD	0.3	0.2	0.2	0.2	0.2	0.2	0.2	0.2	0.1	0.1	0.1
세계	0.9	0.8	0.8	0.8	0.8	0.8	0.8	0.7	0.7	0.7	0.7

자료: OECD Data Explorer(<https://data-explorer.oecd.org/>), 검색일: 2026.8.24.의 자료를 재가공하여 저자 작성.

〈부표 3〉 품목별 실질 세계 가격 전망(2026-2035)

구분		단위	'23-'25 평균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곡물	밀	달러/톤	272.6	243.4	256.2	258.6	259.4	259.0	257.9	256.6	255.5	254.2	252.7
	옥수수	달러/톤	204.3	203.3	197.6	198.4	198.4	198.0	197.8	196.8	195.9	194.8	193.6
	기타 조립곡물	달러/톤	229.7	223.0	216.5	217.1	216.4	215.8	214.9	213.8	212.7	211.5	210.2
	쌀(정곡 기준)	달러/톤	481.7	397.0	398.3	399.0	398.8	397.7	396.4	394.8	393.0	391.1	389.0
	주정박	달러/톤	190.8	155.0	150.9	151.9	152.4	152.5	152.3	151.5	150.7	149.9	149.0
유지 종자	대두	달러/톤	478.6	468.3	467.8	465.8	461.6	462.3	462.7	460.4	458.8	456.5	454.8
	기타 유지종자	달러/톤	542.9	556.7	557.1	553.9	553.2	553.2	555.8	554.2	553.1	551.6	551.2
	단백질박	달러/톤	376.0	327.6	325.2	327.5	328.1	328.6	330.5	328.1	328.1	327.3	326.0
	식물성 유지	달러/톤	1,191.4	1,308.8	1,263.2	1,249.3	1,233.8	1,227.2	1,224.9	1,222.1	1,219.0	1,216.1	1,217.2
감미료	원당	달러/톤	416.2	325.3	331.0	354.0	364.3	367.2	366.9	364.3	361.7	359.5	357.6
	정제당	달러/톤	527.6	419.3	425.1	456.3	471.7	475.5	474.6	471.9	470.6	469.6	468.7
	당밀	달러/톤	201.4	171.3	175.3	180.8	182.1	180.5	182.8	183.5	185.8	188.0	190.1
육류	쇠고기 및 송아지고기	달러/톤	6,684.8	7,898.7	7,501.8	6,977.6	6,390.7	5,971.5	5,610.5	5,588.3	5,587.3	5,591.6	5,595.9
	돼지고기	달러/톤	2,963.0	2,697.7	2,561.4	2,569.6	2,553.6	2,528.3	2,503.4	2,463.5	2,437.8	2,410.5	2,381.5
	가금육	달러/톤	1,876.1	1,712.7	1,654.6	1,637.7	1,619.3	1,599.6	1,584.3	1,563.5	1,547.8	1,531.9	1,516.1
	양고기	달러/톤	7,263.5	8,070.8	7,412.0	7,195.0	7,113.4	7,028.0	7,014.4	6,969.7	6,943.2	6,915.2	6,898.7
여류 및 수산물	교역량	달러/톤	3,480.4	3,200.0	3,002.5	2,973.0	2,940.0	2,903.7	2,868.2	2,833.0	2,798.1	2,763.7	2,729.7
	양식	달러/톤	3,552.6	3,349.5	3,158.2	3,166.0	3,149.3	3,131.0	3,111.4	3,096.5	3,071.8	3,051.4	3,029.4
	어획	달러/톤	2,057.3	1,997.3	1,906.5	1,882.6	1,858.7	1,851.4	1,832.3	1,821.0	1,795.2	1,787.5	1,763.7
	어분	달러/톤	1,781.2	1,444.5	1,562.1	1,428.3	1,471.6	1,485.3	1,775.4	1,543.9	1,572.6	1,593.0	1,608.6
	어유	달러/톤	4,060.1	2,985.6	3,224.3	2,976.7	3,260.1	3,283.5	3,525.7	3,196.8	3,413.1	3,447.4	3,402.5
유제품	버터	달러/톤	6,402.0	5,739.7	5,815.7	5,874.0	5,826.6	5,798.6	5,763.2	5,736.9	5,715.6	5,702.2	5,684.9
	치즈	달러/톤	4,684.9	4,471.8	4,499.9	4,541.0	4,535.5	4,532.5	4,528.3	4,524.3	4,522.4	4,524.7	4,524.0
	탈지분유	달러/톤	2,796.1	2,723.6	2,731.3	2,760.6	2,766.1	2,769.0	2,774.1	2,775.5	2,775.7	2,775.5	2,773.8
	전지분유	달러/톤	3,557.3	3,559.4	3,612.3	3,647.0	3,652.6	3,652.2	3,654.3	3,651.4	3,649.1	3,648.7	3,645.4
	유청분말	달러/톤	1,003.1	1,124.9	1,115.2	1,118.5	1,117.8	1,115.6	1,114.8	1,112.4	1,109.9	1,109.0	1,106.7
	카제인	달러/톤	8,948.3	7,582.8	7,543.8	7,567.6	7,578.0	7,576.4	7,572.8	7,568.0	7,556.5	7,547.1	7,534.9
바이오 연료	에탄올	달러/ 100L	57.6	53.5	49.8	49.2	48.5	47.9	48.0	47.5	47.3	46.7	46.3
	바이오매스 기반 디젤	달러/ 100L	136.4	141.3	135.4	137.1	134.6	133.2	133.8	134.5	133.3	131.3	132.7
면화		달러/톤	1,910.2	1,838.5	1,847.0	1,855.6	1,848.8	1,827.9	1,802.2	1,776.4	1,750.4	1,726.6	1,709.5
근채류 및 괴경류		달러/톤	232.6	199.8	203.7	205.9	206.4	206.0	205.6	204.6	203.4	202.0	200.6
두류		달러/톤	292.2	240.1	242.7	247.1	249.4	250.8	251.8	252.1	252.3	252.3	252.0

자료: OECD Data Explorer(<https://data-explorer.oecd.org/>), 검색일: 2026.8.24.의 자료를 재가공하여 저자 작성.

〈부표 4〉 품목별 수입량 전망(2026~2035)

단위: 천 톤

구분		'23-'25 평균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밀	전 세계	201,502	204,005	206,807	210,290	213,927	217,631	221,132	224,676	228,096	231,431	235,049
	OECD	45,978	46,309	45,609	45,582	45,519	45,530	45,580	45,615	45,666	45,717	45,769
	개발도상국(DCs)	163,347	167,962	170,807	174,022	177,505	180,984	184,293	187,700	190,938	194,091	197,510
	최빈국(LDCs)	21,375	23,350	24,396	25,525	26,788	28,053	29,245	30,447	31,633	32,799	33,954
옥수수	전 세계	190,164	190,234	190,317	193,094	196,410	199,798	203,252	207,045	210,668	214,505	218,325
	OECD	87,021	88,699	86,790	87,879	88,709	89,467	90,129	91,327	92,080	92,982	93,882
	개발도상국(DCs)	147,086	149,428	148,082	150,479	153,442	156,499	159,695	163,181	166,475	169,961	173,441
	최빈국(LDCs)	4,554	4,596	4,986	5,039	5,144	5,264	5,373	5,465	5,570	5,661	5,758
기타 조립곡물	전 세계	45,227	45,175	46,580	47,194	47,980	49,017	50,207	51,114	52,075	53,056	54,088
	OECD	8,383	8,098	8,307	8,278	8,301	8,356	8,448	8,514	8,599	8,697	8,802
	개발도상국(DCs)	37,916	38,416	39,820	40,452	41,242	42,259	43,416	44,302	45,229	46,181	47,187
	최빈국(LDCs)	1,924	2,235	2,634	2,786	3,030	3,433	3,839	4,081	4,313	4,568	4,869
쌀	전 세계	59,915	65,454	66,038	67,414	69,793	71,611	73,501	75,490	77,498	79,494	81,457
	OECD	8,502	8,356	8,400	8,482	8,578	8,662	8,752	8,844	8,935	9,026	9,117
	개발도상국(DCs)	51,671	57,421	57,926	59,198	61,477	63,197	65,006	66,904	68,823	70,730	72,606
	최빈국(LDCs)	12,575	15,715	16,425	17,174	18,105	18,879	19,664	20,461	21,282	22,126	22,994
대두	전 세계	178,430	183,409	173,675	173,938	173,918	173,991	174,301	174,743	175,079	175,423	175,660
	OECD	31,700	32,194	32,179	32,317	32,471	32,493	32,561	32,608	32,674	32,742	32,795
	개발도상국(DCs)	157,345	162,222	152,639	152,904	152,842	152,978	153,335	153,846	154,234	154,628	154,927
	최빈국(LDCs)	3,187	3,682	3,741	3,803	3,865	3,914	3,968	4,022	4,080	4,140	4,199
기타 유지종자	전 세계	23,867	23,976	24,055	24,189	24,301	24,449	24,562	24,702	24,842	25,006	25,189
	OECD	13,600	13,709	13,656	13,647	13,619	13,604	13,598	13,605	13,598	13,596	13,599
	개발도상국(DCs)	11,404	11,795	11,968	12,129	12,291	12,475	12,618	12,776	12,950	13,144	13,350
	최빈국(LDCs)	460	444	458	465	462	467	470	472	486	518	563
단백질박	전 세계	102,304	107,750	109,096	110,654	111,851	113,180	114,357	115,850	117,361	119,046	120,852
	OECD	50,103	51,600	51,599	51,620	51,476	51,423	51,250	51,274	51,336	51,447	51,593
	개발도상국(DCs)	61,746	66,462	67,924	69,546	70,944	72,422	73,859	75,425	76,941	78,603	80,358
	최빈국(LDCs)	2,486	2,812	2,950	3,126	3,322	3,516	3,723	3,927	4,136	4,342	4,556
식물성 유지	전 세계	86,518	88,072	88,148	88,318	88,736	89,102	89,493	89,899	90,303	90,693	91,050
	OECD	25,221	24,253	23,996	23,736	23,518	23,331	23,148	22,963	22,760	22,549	22,358
	개발도상국(DCs)	63,675	66,146	66,468	66,895	67,517	68,060	68,626	69,211	69,809	70,401	70,941
	최빈국(LDCs)	7,504	7,790	7,900	8,041	8,216	8,381	8,547	8,718	8,890	9,062	9,228
설탕	전 세계	62,417	61,016	61,845	62,258	62,882	63,941	65,146	66,206	67,054	67,827	68,549
	OECD	11,151	11,196	11,325	11,135	11,082	11,007	10,939	10,878	10,830	10,788	10,733
	개발도상국(DCs)	51,248	49,818	50,490	51,059	51,650	52,750	53,996	55,098	55,976	56,780	57,533
	최빈국(LDCs)	8,982	8,853	9,102	9,374	9,769	10,088	10,387	10,674	10,955	11,268	11,591

(계속)

구분		'23-'25 평균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쇠고기	전 세계	12,552	13,473	13,060	13,053	13,102	13,195	13,345	13,508	13,644	13,769	13,890
	OECD	5,098	5,688	5,083	4,873	4,817	4,779	4,801	4,825	4,846	4,859	4,866
	개발도상국(DCs)	8,274	8,634	8,690	8,878	8,981	9,104	9,225	9,358	9,472	9,583	9,697
	최빈국(LDCs)	96	90	88	90	89	93	98	106	113	121	130
돼지고기	전 세계	9,580	9,939	9,952	9,983	9,991	10,020	10,041	10,048	10,070	10,096	10,127
	OECD	5,555	5,691	5,712	5,715	5,735	5,751	5,763	5,779	5,789	5,798	5,806
	개발도상국(DCs)	6,130	6,402	6,386	6,399	6,388	6,397	6,407	6,402	6,416	6,435	6,459
	최빈국(LDCs)	93	131	142	148	151	155	165	177	189	202	217
가금육	전 세계	14,874	15,738	15,992	16,188	16,379	16,568	16,778	17,001	17,210	17,427	17,650
	OECD	4,393	4,753	4,805	4,868	4,914	4,960	5,000	5,047	5,085	5,125	5,166
	개발도상국(DCs)	10,601	11,226	11,426	11,562	11,697	11,831	11,991	12,158	12,323	12,495	12,674
	최빈국(LDCs)	1,196	1,364	1,447	1,510	1,579	1,646	1,715	1,788	1,855	1,922	1,990
양고기	전 세계	1,306	1,394	1,386	1,430	1,453	1,464	1,459	1,453	1,448	1,444	1,438
	OECD	484	509	514	523	528	531	531	529	528	526	523
	개발도상국(DCs)	851	909	897	932	949	957	952	948	944	942	939
	최빈국(LDCs)	23	26	25	26	26	24	23	23	22	23	23
버터	전 세계	1,053	1,100	1,115	1,125	1,140	1,152	1,165	1,176	1,189	1,201	1,214
	OECD	324	341	348	351	354	357	358	360	361	363	364
	개발도상국(DCs)	615	639	653	664	675	687	697	708	719	730	741
	최빈국(LDCs)	10	10	11	11	11	12	12	12	13	13	13
치즈	전 세계	3,739	3,861	3,922	3,965	4,018	4,068	4,118	4,170	4,226	4,280	4,337
	OECD	1,744	1,781	1,802	1,816	1,831	1,846	1,861	1,875	1,890	1,901	1,913
	개발도상국(DCs)	1,987	2,053	2,095	2,125	2,167	2,205	2,243	2,281	2,322	2,364	2,407
	최빈국(LDCs)	30	36	39	42	45	48	51	54	57	60	64
전지분유	전 세계	2,494	2,409	2,428	2,453	2,478	2,505	2,529	2,557	2,584	2,611	2,640
	OECD	160	151	152	150	149	149	148	147	147	146	146
	개발도상국(DCs)	2,357	2,280	2,300	2,325	2,348	2,374	2,397	2,422	2,446	2,472	2,497
	최빈국(LDCs)	244	236	245	254	264	274	284	294	304	314	325
탈지분유	전 세계	2,520	2,738	2,812	2,880	2,932	2,984	3,035	3,087	3,139	3,191	3,244
	OECD	462	489	513	535	539	543	548	553	559	564	570
	개발도상국(DCs)	2,310	2,514	2,586	2,654	2,705	2,755	2,804	2,854	2,904	2,954	3,005
	최빈국(LDCs)	85	83	87	91	95	98	102	106	110	114	118
어류	전 세계	44,524	44,474	44,458	44,868	45,403	45,858	45,502	45,987	46,486	46,762	47,027
	OECD	22,231	22,796	22,579	22,738	22,898	23,124	22,550	22,791	23,041	23,094	23,110
	개발도상국(DCs)	22,895	22,381	22,614	22,893	23,264	23,463	23,676	23,993	24,243	24,481	24,744
	최빈국(LDCs)	1,596	1,661	1,687	1,713	1,740	1,766	1,793	1,809	1,824	1,840	1,856
어분	전 세계	3,891	3,844	3,782	4,050	4,090	4,150	3,770	4,105	4,242	4,278	4,306
	OECD	1,216	1,179	1,109	1,201	1,206	1,204	1,052	1,149	1,177	1,163	1,155
	개발도상국(DCs)	2,898	2,893	2,911	3,093	3,144	3,211	2,979	3,224	3,357	3,405	3,448
	최빈국(LDCs)	106	75	73	95	99	104	78	105	112	114	116

(계속)

구분		'23-'25 평균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어유	전 세계	961	961	974	1,010	1,015	1,025	978	1,016	1,049	1,056	1,063
	OECD	787	759	781	800	816	826	792	815	851	857	862
	개발도상국(DCs)	344	339	337	352	350	352	334	352	356	356	359
	최빈국(LDCs)	8	8	8	8	8	8	8	8	8	8	8
에탄올	전 세계	12,929	13,224	13,116	13,141	13,315	13,438	13,528	13,661	13,606	13,587	13,548
	OECD	9,781	9,740	9,564	9,525	9,636	9,698	9,730	9,795	9,682	9,588	9,477
	개발도상국(DCs)	4,461	4,876	4,919	4,974	5,029	5,089	5,142	5,209	5,262	5,338	5,407
	최빈국(LDCs)	158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바이오매스 기반 디젤	전 세계	7,641	7,827	7,790	7,845	7,927	7,900	7,907	7,861	7,820	7,763	7,504
	OECD	6,928	6,917	6,875	6,930	7,006	6,973	6,978	6,933	6,887	6,822	6,564
	개발도상국(DCs)	713	910	915	915	922	927	928	928	933	941	940
	최빈국(LDCs)	0	0	0	0	0	0	0	0	0	0	0
면화	전 세계	9,372	9,721	9,897	10,128	10,352	10,610	10,864	11,121	11,384	11,682	11,964
	OECD	1,441	1,718	1,728	1,741	1,751	1,764	1,782	1,802	1,825	1,851	1,876
	개발도상국(DCs)	8,994	9,377	9,557	9,784	10,006	10,261	10,515	10,771	11,034	11,331	11,613
	최빈국(LDCs)	1,739	1,771	1,820	1,879	1,930	1,985	2,042	2,100	2,160	2,223	2,286
근채류 및 과경류	전 세계	26,672	27,999	28,362	28,496	28,613	28,756	28,893	29,019	29,140	29,273	29,412
	OECD	3,436	3,758	3,744	3,757	3,787	3,776	3,768	3,744	3,728	3,713	3,701
	개발도상국(DCs)	23,258	24,278	24,644	24,770	24,877	25,040	25,219	25,379	25,519	25,669	25,821
	최빈국(LDCs)	420	433	405	411	412	408	406	406	406	407	408
두류	전 세계	22,784	23,330	23,417	23,518	23,701	23,890	24,125	24,336	24,591	24,843	25,094
	OECD	5,656	5,589	5,567	5,543	5,516	5,493	5,496	5,502	5,509	5,517	5,525
	개발도상국(DCs)	19,126	19,749	19,823	19,922	20,108	20,297	20,531	20,740	20,989	21,235	21,480
	최빈국(LDCs)	2,026	2,080	2,089	2,106	2,123	2,148	2,170	2,190	2,216	2,241	2,267

자료: OECD Data Explorer(<https://data-explorer.oecd.org/>), 검색일: 2026.8.24.의 자료를 재가공하여 저자 작성.

〈부표 5〉 품목별 수출량 전망(2026-2035)

단위: 천 톤

	구분	'23-'25 평균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밀	OECD	110,295	105,064	108,070	109,727	111,526	113,421	115,037	116,717	118,347	119,899	121,727
	개발도상국(DCs)	25,058	25,426	25,642	25,747	26,007	26,238	26,453	26,624	26,791	26,958	27,132
	최빈국(LDCs)	107	101	99	97	95	92	90	89	87	85	84
옥수수	OECD	67,297	67,358	66,720	66,765	67,109	67,514	67,874	68,451	68,930	69,509	70,053
	개발도상국(DCs)	86,491	85,710	87,273	89,013	91,051	92,943	94,868	96,869	98,810	100,828	102,809
	최빈국(LDCs)	4,805	5,634	4,955	4,877	4,762	4,645	4,565	4,503	4,439	4,389	4,336
기타 조립곡물	OECD	30,757	30,117	31,208	31,605	32,092	32,882	33,802	34,419	35,080	35,739	36,442
	개발도상국(DCs)	6,090	6,273	6,140	6,110	6,123	6,114	6,095	6,079	6,097	6,120	6,149
	최빈국(LDCs)	367	464	404	361	316	258	211	177	154	131	110
쌀	OECD	4,242	3,867	3,897	3,930	3,963	3,992	4,024	4,057	4,091	4,126	4,161
	개발도상국(DCs)	55,465	61,369	61,984	63,312	65,642	67,417	69,261	71,203	73,164	75,111	77,025
	최빈국(LDCs)	6,807	7,880	7,379	7,564	7,755	7,975	8,232	8,518	8,833	9,181	9,563
대두	OECD	50,131	48,630	38,619	38,516	38,515	38,668	38,799	38,958	39,137	39,337	39,560
	개발도상국(DCs)	128,138	130,698	130,917	131,188	131,103	130,959	131,067	131,281	131,372	131,447	131,387
	최빈국(LDCs)	717	657	684	698	704	703	704	705	704	703	701
기타 유지종자	OECD	15,005	14,877	14,958	15,129	15,230	15,340	15,359	15,428	15,496	15,560	15,620
	개발도상국(DCs)	3,426	3,505	3,411	3,332	3,261	3,210	3,163	3,110	3,066	3,042	3,033
	최빈국(LDCs)	441	437	395	355	310	267	227	188	155	138	131
단백질박	OECD	26,425	27,287	28,726	29,158	29,715	30,186	30,751	31,576	32,112	32,707	33,282
	개발도상국(DCs)	68,697	71,138	71,006	72,081	72,693	73,493	74,012	74,629	75,507	76,509	77,658
	최빈국(LDCs)	476	410	395	380	361	341	323	310	297	285	274
식물성 유지	OECD	10,197	9,043	8,574	8,508	8,602	8,713	8,937	9,211	9,472	9,750	10,024
	개발도상국(DCs)	65,024	66,166	66,521	66,533	66,685	66,767	66,763	66,705	66,656	66,576	66,464
	최빈국(LDCs)	627	669	657	643	627	613	599	586	574	562	550
설탕	OECD	6,564	6,254	6,446	6,536	6,779	6,883	6,982	7,079	7,136	7,211	7,279
	개발도상국(DCs)	58,730	57,432	57,964	58,315	58,857	59,843	60,950	61,886	62,665	63,367	64,019
	최빈국(LDCs)	1,478	1,182	1,195	1,197	1,177	1,091	1,000	913	850	816	780
쇠고기	OECD	5,768	5,569	5,400	5,419	5,401	5,470	5,589	5,715	5,767	5,802	5,836
	개발도상국(DCs)	7,656	8,223	8,017	7,976	8,016	8,047	8,086	8,134	8,221	8,312	8,402
	최빈국(LDCs)	7	6	5	3	3	3	3	3	3	3	3
돼지고기	OECD	8,096	7,937	7,951	7,975	7,991	8,015	8,033	8,037	8,055	8,075	8,099
	개발도상국(DCs)	1,923	2,068	2,070	2,086	2,084	2,095	2,103	2,112	2,122	2,132	2,143
	최빈국(LDCs)											
가금육	OECD	6,562	6,523	6,579	6,621	6,669	6,714	6,766	6,823	6,889	6,961	7,037
	개발도상국(DCs)	8,687	8,759	8,956	9,120	9,277	9,436	9,609	9,792	9,952	10,115	10,285
	최빈국(LDCs)	23	23	23	23	23	23	23	23	23	23	23
양고기	OECD	1,287	1,154	1,171	1,245	1,282	1,306	1,307	1,311	1,315	1,322	1,326
	개발도상국(DCs)	101	92	85	79	75	73	72	71	71	70	70
	최빈국(LDCs)	1	1	1	1	1	1	1	1	0	0	0

(계속)

구분		'23-'25 평균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버터	OECD	852	862	878	888	893	897	902	905	910	914	919
	개발도상국(DCs)	153	124	119	114	120	124	128	132	136	140	145
	최빈국(LDCs)	2	10	16	21	27	32	38	44	49	55	60
치즈	OECD	2,783	2,867	2,962	3,011	3,068	3,120	3,169	3,220	3,276	3,329	3,386
	개발도상국(DCs)	680	622	595	584	574	568	563	558	553	549	545
	최빈국(LDCs)	2	4	5	5	5	5	5	5	5	5	5
전지분유	OECD	1,706	1,631	1,637	1,652	1,668	1,686	1,704	1,724	1,744	1,763	1,783
	개발도상국(DCs)	764	762	773	781	787	794	800	805	811	818	825
	최빈국(LDCs)	7	6	6	6	6	6	6	6	6	6	6
탈지분유	OECD	2,203	2,215	2,283	2,346	2,396	2,445	2,493	2,542	2,591	2,640	2,689
	개발도상국(DCs)	335	462	467	473	478	484	489	494	500	505	511
	최빈국(LDCs)	7	7	7	7	7	7	7	7	7	7	7
여류	OECD	13,056	12,740	13,154	13,121	13,491	13,695	13,742	13,429	13,827	13,923	14,035
	개발도상국(DCs)	31,227	31,471	31,287	31,701	32,058	32,474	32,117	32,614	33,132	33,364	33,549
	최빈국(LDCs)	1,708	1,817	1,783	1,745	1,712	1,680	1,652	1,624	1,598	1,573	1,549
어분	OECD	957	991	1,081	978	1,051	1,067	1,111	949	1,080	1,095	1,095
	개발도상국(DCs)	2,753	2,677	2,539	2,843	2,867	2,920	2,494	2,866	2,988	3,016	3,032
	최빈국(LDCs)	184	172	169	175	179	181	175	183	185	187	189
어유	OECD	515	553	588	575	584	588	602	574	605	610	615
	개발도상국(DCs)	586	649	618	666	666	672	620	661	685	691	695
	최빈국(LDCs)	15	16	13	13	14	13	13	14	13	14	14
에탄올	OECD	7,643	8,442	8,259	8,248	8,394	8,493	8,498	8,605	8,479	8,453	8,393
	개발도상국(DCs)	3,634	3,117	3,192	3,228	3,258	3,281	3,365	3,392	3,461	3,469	3,489
	최빈국(LDCs)	28	38	38	38	38	38	38	38	38	38	38
바이오디젤	OECD	3,708	3,116	3,163	3,224	3,258	3,297	3,340	3,371	3,365	3,329	3,329
	개발도상국(DCs)	4,445	5,223	5,140	5,134	5,182	5,115	5,080	5,004	4,968	4,947	4,689
	최빈국(LDCs)											
면화	OECD	4,544	4,301	4,320	4,396	4,460	4,564	4,637	4,714	4,793	4,904	4,983
	개발도상국(DCs)	5,154	5,370	5,531	5,700	5,875	6,046	6,232	6,419	6,610	6,803	7,012
	최빈국(LDCs)	922	874	871	872	874	872	870	865	858	851	847
근채류 및 괴경류	OECD	1,927	1,906	1,921	1,955	1,979	2,009	2,044	2,070	2,099	2,133	2,165
	개발도상국(DCs)	15,660	16,956	17,317	17,434	17,539	17,657	17,761	17,862	17,956	18,056	18,164
	최빈국(LDCs)	1,081	1,170	1,264	1,235	1,196	1,167	1,139	1,112	1,084	1,060	1,041
두류	OECD	12,089	12,332	12,441	12,521	12,665	12,824	13,022	13,197	13,417	13,626	13,830
	개발도상국(DCs)	8,659	8,875	8,872	8,896	8,925	8,946	8,970	8,993	9,018	9,051	9,084
	최빈국(LDCs)	3,075	3,195	3,203	3,220	3,244	3,256	3,281	3,315	3,349	3,387	3,427

자료: OECD Data Explorer(<https://data-explorer.oecd.org/>), 검색일: 2026.8.24.의 자료를 재가공하여 저자 작성.

■ 참고문헌

IMF(2026),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6: Global Economy in the Shadow of War, International Monetary Fund.

OECD(2026), “The impact of the conflict in the Middle East on agricultural markets”, OECD Food, Agriculture and Fisheries Papers, No. 225, OECD Publishing.

OECD/FAO(2026),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26-2035, OECD Publishing, Paris/FAO, Rome.

〈온라인자료〉

OECD Data Explorer(<https://data-explorer.oecd.org/>),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26-2035, 검색일: 2026. 8. 24.